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 화엄의 세계로

1. 목적 및 배경

- 지리산지역 사찰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과 민족정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역사문화체험
- 프로그램명 :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 화엄의 세계로
- 대 상 : 일반인 20명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형태 : 해설사 동행 1시간
- 장 소 : 화엄사 경내
- 주요내용 : 국립공원 알기, 화엄사 역사 알기, 화엄사 문화재 및 자연알기
- 소요예산 : 100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SNS 및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전화문의(061-780-7700)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 SNS 홍보 등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 화엄의 세계로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 화엄의 세계로 (당일)



운영 장소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참가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6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전화문의 (061-780-7700)

일반 프로그램

화엄의 세계로

꽃들의 장엄

세상의 아름다운 꽃은 물론, 이름 없는 온갖 꽃들을 포함한 꽃들의 장엄을 말한다.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의 삼문을 지나며, 천년고찰 화엄사의 창건이야기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온 불교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벽암선사 차일혁

우리의 문화를 지키다.

임진왜란과 6.25를 겪으며 훼손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벽암선사와 차일혁 경감의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화엄사의 우리 문화재

화엄사의 국보와 보물 이야기

화엄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각황전, 각황전 앞 석등 등의 국보와 대웅전, 동·서 삼층석탑등을 살펴보고, 그 속에 숨은 재미있는 설화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자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 화엄의 세계로

활동장소	화엄사 일원
소요시간	60분
참가대상	일반성인
참가인원	15~20명/해설사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박경숙

활동목표

- 국립공원 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준비물

- 사진자료, 카메라

유의사항

- 진 촬영 금지 장소 및 문화재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안전에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 화엄사 연혁 및 설화 이야기 	5분
전개 (화엄사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개의 관문과 상상의 동물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문, 벽암국일도대선사비(상상의 동물 연) - 금강문과 천왕문 • 사찰의 깃발 ‘당간지주’ • 불교사물(법고, 범종, 운판, 목어) • 화엄사 전각 및 문화재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제루, 대웅전, 명부전, 영전, 원통전, 각황전 - 영산회괘불탱화, 원통전앞 사자탑, 석등, 화엄석경 • 부처님의 사리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멸보궁 가는 길 108계단 - 사사자삼층석탑(사진자료)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및 마무리 	5분

시나리오

인사 및 소개. 지리산국립공원 알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있는 자연환경해설사○○○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는 지리산에 위치한 화엄사를 방문하셨는데, 먼저 지리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산에 머물면 지혜로워 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곳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이 곳 화엄사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1967년에 지정 되었습니다. 전남의 구례군, 전북의 남원시, 경남의 하동,산청,함양군등 5개시·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 문화해설 등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곳 화엄사에서 우리 문화재에 숨은 의미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화엄사 연혁 및 설화 이야기

화엄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1500전인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 스님인 연기조사가 창건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상상의 동물 ‘연’을 타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로 건너와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날 화엄계곡 쪽에서 연기가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이 쫓아 올라가보니 그곳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고, 움막 안에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한자를 쓰고 몸짓으로 의사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를 찾고자 인도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곳이 그에 적합한 자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마을사람들이 작은 법당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엄사가 시초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자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들어 점차적으로 커져 지금 규모의 화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화엄사가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임진왜란(1592~1598)때 화엄사에 계셨던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에 왜군들이 앙갚음을 하기 위해 화엄사를 전부 불에 태웁니

다. 그 후 전쟁이 끝나고 30~40년 후에 벽암대사의 대웅전 중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의 화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것들이지만, 석조문화재들은 1000여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엄사(華嚴寺)란 이름의 뜻은 세상의 아름다운 꽃은 물론, 이름 없는 온갖 꽃들을 포함한 꽃들의 장엄(莊嚴)을 말합니다. 풀어 말하자면, 세상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화엄사에는 현재 각황전을 비롯한 국보 4점과 보물8점등 많은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로는 울벚나무와 길상암 앞의 매화나무 등이 있습니다.

화엄사 삼문 알기

- 일주문



화엄사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 문인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불계와 속계의 경계로서 모든, 혼란스런 생각들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나란히 되어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화엄사의 일주문의 현판을 보면 '지리산화엄사(智異山華嚴寺)란 아주 잘 써어진 글씨를 볼 수가 있는데, 글씨의 주인공은 선조임금 아들이며, 인조의 숙부이기도 한 의창군(1589 ~ 1645)의 글씨입니다.

벽암국일도대선사비



벽암국일도대선사비



차일혁경무관 공적비

금강문 앞에 보이는 공적비는 340여전에 세워진 것으로 임진왜란으로 찢어 미가 된 화엄사를 중건한 벽암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장으로 활약했고 화엄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중건에 헌신하다가 말년에 화엄사에서 입적한 분입니다. 인조임금 때는 팔도총섭이란 직책을 맡아서 남한산성을 완성한 공로로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쟁을 대비해서 화엄사일대에 울벚나무를 심게 하였고, 그 때 당시에 심었던 나무 중 한 그루가 살아남았는데, 현재 지장암 뒤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성 추구하고 함께 주변 경관과 조화까지 고려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석비는 크게 받침부분인 귀부, 비신부, 지붕역할을 하는 이수로 나뉘집니다. 석비의 받침이 되는 귀부를 보면 어떤 동물을 표현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네, 거북이, 자라, 용 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표현된 동물은 상상의 동물인 '연'입니다.

보통 상상의 동물하면 용, 봉황, 기린, 해태, 주작, 극락조 등을 생각하는데 . '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상의 동물인데, 화엄사를 창건했던 연기조사가 '연'을 타고 지리산에 와서 화엄사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연'은 물과 육지,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몸체는 거북, 머리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날개와 꼬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날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에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써 또 다른 자연과의 만남을 의도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자연관과 석조술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약 400년전에 벽암대사께서 화엄사를 중건해서 지금 우리가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화엄사가 불에 태워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축대 밑에 세워진 공적비의 주인공인 차일혁경무관 덕분에 그 위기를 잘 넘깁니다. 당시 산 아래 있던 사찰들이 빨치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차일혁경무관은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화엄사를 불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황전의 문짝을 다 떼어서 화엄사 마당에 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화엄사를 다 태웠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 덕분에 화엄사가 한국전쟁 당시 불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천여 년 전의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벽암대사와 차일혁경무관 같

은 분들로 인해 우리 문화재가 지켜졌듯이, 지금의 우리도 우리문화재의 소중함을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문

이곳은 두 번째 문인 금강문입니다. 금강문 안에는 부처님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계십니다.

금강이란 뜻은 매우 단단하여 결코 부서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금강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 그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금강역사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사찰의 문양쪽을 지키는 수문신장으로 인왕역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라연금강은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입을 크게 벌려 ‘아’하는 소리를 내면서 공격과 시작을 뜻하며, ‘아금강역사’라고 합니다. 밀적금강은 부처님의 비밀스런 사적을 모두 듣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며 ‘흙금강역사’라고 하는데, 방어와 마지막을 뜻합니다. 이때 ‘아’와 ‘흙’은 범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두 금강역사의 입은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과 통일,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는 석가모니불의 협시불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동자로 표현했는데, 사자는 지혜를 코끼리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이곳 금강문과 다음의 천왕문을 지날 때는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금강역사나 사천왕이 불법을 수호하듯이 자신도 지켜주도록 기원하면서 예를 표하고 지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왕문

마지막 문인 천왕문입니다. 이곳의 사천왕은 원래는 천상세계의 귀신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괴롭혔던 존재 들이었으나,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불국토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동쪽을 지키는 동방지국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 등 사천왕은 덕으로 수용되지 않는 악귀나 중생을 무력으로 강제하여 악을 제어하고 사찰안의 불국토를 외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에서 사천왕을 조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크게는 전 국토를 외적으로부터 막아내고자 하는 국가적인 호국사상과 연결되지만,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사악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려는 호법신인 것입니다.

사천왕들을 보면, 몸집도 크고 얼굴도 험악하고 눈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 있는 곳으로 나쁜 기운이나 악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겁을 주기 위함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죄의식을 불러 일으켜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우리 내면의 번뇌를 끊으면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당간지주. 법고루(法鼓樓)



당간지주



법고루

계단을 올라서면 축대 밑 모과나무 옆에 자리하고 있는 두 개의 긴 돌기둥이 보입니다. 이 긴 돌기둥 두개는 당간을 받치고 있는 지주라고 해서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화엄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찰에는 당간은 없어지고, 당간지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은 깃발을 의미하고, 간은 깃발을 달았던 대를 의미합니다. 긴 장대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간지주는 불교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사찰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으로 부터 부처님의 신성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경계를 나타내고, 깃발을 달아 사찰의 각종행사나 알림 사항 등을 달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 화엄사의 당간지주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추측을 해 볼 수 있지만, 화엄사 가람배치가 임진왜란 후 중건하면서 달라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 신라 말기와 고려 초에 활약했던 도선국사의 풍수지리설이 이곳 화엄사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도선국사가 화엄사에 계실 때에 지리산에 올라가서 화엄사를 바라보니, 풍수지리 상 화엄사가 풍랑에 흔들리는 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돛을 달아주어야 했는데, 바로 지금의 당

간지주 위치가 돛대의 위치였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10여년전만해도 당간지주 앞에서 당간지주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간지주 앞의 시설물로 인해 이렇게 멀찍이 당간지주를 바라보고 있는 점이 한편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듯이 이 곳 화엄사 곳곳도 세월에 따라 예전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법고루

이곳은 법고루입니다.

사물은 흔히 어떤 일과 물건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이 범종루의 네 가지 법구인 범종, 법고, 운판, 목어를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주로 아침, 저녁의 예불에 사용되며, 사찰의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범종각에는 네 가지 법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화엄사에서는 들어오는 방향 왼쪽의 범종각에 범종만 홀로 위치하고, 오른쪽으로 법고루를 조성하여 그 밖의 사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범종은 사천왕이 있는 수미산 중턱을 지나 옥망을 극복한 수행자를 격려 하던 것을 상징하였는데, 그 뒤에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의미로 확대 되었습니다.

법고루에 있는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이란 뜻으로 네발 달린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을 위해서 칩니다. 운판은 구름모양의 쇠로 된 판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칩니다. 목어는 나무로 만든 고기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 곧, 물속 중생을 위해서 칩니다.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의 사물이 불교 사물에서 전래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보제루

이곳은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의미의 보제루입니다. 예전에는 승려와 신도들의 집회용 건물로 쓰였던 곳으로 지금의 강당역할을 했던 건물입니다. 이 곳 화엄사의 보제루 건물을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섞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건물은 2006년에 완전 해체 한 후 다시 복원해 놓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하고, 여름에는 탐방객들이 보제루 안에서 많이 쉬어 가는데, 창문을 통해 보는 밖의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화엄사 건물배치

보제루의 오른쪽을 돌아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화엄사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이 중심 법당이 하나인데, 비해서 화엄사는 주 법당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웅전과 화엄사의 독창적인 건물인 각황전입니다. 화엄사에는 규모의 크기로 볼 때 거의 2배인 각황전과 대웅전을 상대적 시각으로 동등한 중심 건물로 바꾸어 놓은 절묘한 장치가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대답확인 후)

보제루 동쪽을 돌아서면 대웅전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한 것과, 각황전을 오르는 계단이 3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비해 대웅전을 오르는 계단은 4칸으로 설치되어 대웅전 쪽으로 시선을 유도해 크기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화엄사 중심 영역 전경

동.서오층석탑

각황전과 대웅전 축대 아래 두 개의 탑이 보입니다.

탑은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후에 사리를 모셨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대신에 불교경전이나 불교와 관련된 각종 물건들을 넣어서 탑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스님의 사리를 모신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대답확인 후) 스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은 부도탑 또는 승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의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은 몇 층일까요?

(대답확인 후)

탑의 층수를 셀 때는 옥개석의 개수를 세면됩니다. 저기 처마처럼 끝부분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옥개석입니다.

(옥개석을 가리키며) 바로 저 돌의 개수를 세어보면 탑의 층수를 알 수 있

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탑은 몇 층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탑 모두 오층석탑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조선 연대는 신라 말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탑과 서탑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찾아볼까요? (대답확인 후) 네~ 먼저 동탑은 기단이 1층인데 비해 서탑은 2층 기단이고, 동탑은 아무 장식이 없는 반면, 서탑은 여러 가지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서탑의 1층 기단에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석탑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2층 기단과 1층 탑신부에 새겨진, 팔부신중이나 사천왕은 수호적인 역할이 강하므로 탑 속의 사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1995년 여름에 서오층석탑을 해체 보수하였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불교경전, 수정구슬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서탑의 사리 장엄구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괘불대



모사 영산회괘불탱화 '야단법석'



괘불대

당간지주와 비슷해 보이는 돌기둥이 법당 앞에 세워져 있을 모습을 다른 사찰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돌기둥의 역할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법회를 열었는데, 많은 대중을 법당 안으로 수용 할 수 없어, 넓은 마당에 예불의 대상인 부처님이 그려진 큰 그림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모여서 법회를 하였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법회 이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야단법석 맞습니다. 야단(野壇) '야외에 세운 단' 법석(法席) '불법을 펴는 자리'란 뜻의 야단법석은 불교용어로 쓰이던 말이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게 되었습니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할 때 그림을 걸었던 저 기둥은 괘불탱화를 거는 괘불대라고 합니다.

화엄사의 4점의 국보 중 하나인 영산회괘불탱화는 훼손 될 위험이 있기 때

문에 지금은 국보인 과불을 모사한 영산회괘불탱화를 걸고 법회를 엽니다.

대웅전

이 대웅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임진왜란 후 30~40년 후에 벽암대사가 중건을 시작해 7년 만에 대웅전과 일부건물들을 완성하였습니다. 대웅전은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공사를 할 때 쇠못을 쓰지 않고 정밀하게 조립한 점이 색다릅니다.

대부분 대웅전은 석가모니부처가 중심 부처 일 때 붙이는 이름으로 화엄사는 부처님과 현판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엄사 대웅전의 중심부처는 진리 자체인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경우 대적광전이나 비로전 등으로 불리는데, 화엄사의 전각을 세운 뒤 억불정책 하에서 지방 관리와 유생들의 박해를 피하는 방편으로 선조의 아들인 의창군에게 현판글씨를 부탁하였는데, 대웅전으로 현판을 내려서, 그대로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불교의식에 의한 삼신불을 모시는 화엄종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삼신불을 모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단 위 중앙이 비로자나불이고, 여러분 왼쪽이 석가모니불, 그리고 보관을 쓰고 있는 부처님이 노사나불입니다. 지금 현재 대웅전과 삼신불 그리고 뒤쪽의 탱화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부전

오른쪽에 있는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곳으로 갖가지 지옥을 열거한 10왕 그림이나 조각을 모신 전각으로, 죽은 영가를 위해 제를 올릴 때 많이 사용되는 전각입니다.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고 난 뒤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님을 주 존으로 모시고 있는데,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는 다른 보살등과는 달리 민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명부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의 모티브가 되는 곳으로 명부전에 조성되어 있는 지옥은 모두 10곳이며, 각 지옥마다 다스리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10대왕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있는데, 혹시 무슨 대왕일까요? 맞습니다. 염라대왕이 명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상은 각 대왕의 뒤편에 있는 지옥탱화를 통해 도산지옥, 화탕지옥, 발설지옥, 거해지옥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엄사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 희생된 승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영전

이곳은 영전입니다. 영전에는 화엄사의 역대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화엄석경

영전 앞쪽으로 눈길을 주면 국보 67호인 각황전(覺皇殿)이 보입니다. 원래는 저 건물 전신으로 장육전(丈六殿)이라 불리던 건물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석가여래의 황금불을 모시던 건물로 사방 벽에는 화엄경을 새긴 석판이 4면에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장육전은 불타버리고 벽을 장식했던 화엄석경 역시 산산조각이 나서 방치되어 있던 돌조각을 수거해서 수장고에 보관중입니다.

석경(石經)은 경전의 원문을 돌 판에 새긴 것인데, 화엄석경(華嚴石經)은 화엄경을 엮은 청색의 돌에 새긴 것이며, 색깔도 화재 때문에 회갈색 등으로 변하였습니다. 화엄석경은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신라 후기의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엄석경은 보물 1040호로 지정 관리 되고 있습니다.

원통전

이 영전 옆에 자리한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일념으로 부르는 중생들의 고통스런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없애주는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불은 아미타불이며,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렁이나, 기타 미물들의 애원도 듣고서 환란을 구제해 주는 자비보살이라고 합니다.

원통전앞사자탑

여기 사자탑은 다른 탑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탑의 용도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공양탑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도 합니다. 사자의 얼굴표정을 한번 보세요. 입모양과 표정들이 다 다르죠?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표현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일명 <화엄사 노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4사자3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보며, 시대는 9세기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귀중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보물(300호)입니다.

석등



각황전 앞 석등



각황전

여기 보이는 석등은 화엄사의 국보중의 하나 각황전 앞 석등입니다. 화엄사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동양 제1의 석등입니다.

석등은 불을 밝힐 때 사용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화엄사 경내에 빛을 비춰 밝게 했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광명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등의 형태는 곡선미가 잘 살려져있는 장구모양의 중대석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상륜부의 꽃 봉우리 모양의 보주를 보면 30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는 우담바라 모양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오심이 지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석등과 각황전의 비율을 봤을 때 석등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각황전의 전신인 신라시대 장륙전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절한 비율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황전

이 건물은 각황전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목조건물 중 가장 큰 각황전은 국보6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 300여년 된 건물로 전신은 3층4면7칸의 장육전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장육전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장육전은 불에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그 후, 다른 전각들은 인조임금 때 복구가 되었는데, 계속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대웅전등 다른 건물에 비해 약 60여년 늦은 숙종임금 때서야 3년여 만에 걸쳐 벽암대사의 제자인 계파선사에 의해 중건이 되었습니다. 각황전이란 뜻은 부처님을 깨달은 왕(성인 중에 성인)이란 뜻과 숙종 임금에게 불교사상을 일깨워 주었다는 뜻인데, 각황전이란 현판은 숙종임금이 그 당시 명필이었던 형조판서 이진휴에게 글을 쓰게 해서 내린 것입니다.

각황전은 거대한 규모이면서도 엄격한 조화로 위엄과 기품을 함께 보이는데 내부에는 3불4보살(관세음보살, 아미타여래, 보현보살, 석가여래, 문수보살, 다보여래, 지적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2층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적멸보궁 가는 길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고요한 진리의 경지라고도 합니다. 적멸보궁의 '적멸(寂滅)'은 범어의 '소멸' 또는 '불어 끈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꺼 없애고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도사와 봉정암 등 5대 적멸보궁이 있는데, 이곳 화엄사에도 2008년부터 4사자삼층석탑을 적멸보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은 각황전에서 4자삼층석탑으로 옮겨가는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멸보궁으로 가는 계단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답 후) 108개단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번뇌를 10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서 108번뇌를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있는 계단입니다.

사사자삼층석탑

계단을 오르면 건물 안에 해체된 사사자삼층석탑의 부재들을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복원공사를 2014년 민간업체를 시작으로 몇 년 동안 진행 하다가, 2019년에 문화재청으로 공사 주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복원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2021년에는 복원 된 사사자삼층석탑을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사사자삼층석탑의 전경입니다.



4사자삼층석탑(2020년 복원 중)



4사자삼층석탑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국보 제35호로 통일신라(8세기 중엽)때의 석탑으로 우리나라 사자 탑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진 탑입니다.

이 탑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위해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곳을 효대(孝臺)라고도 부릅니다. 지극한 효성이 깃든 곳이란 뜻입니다.

탑 앞의 석등이 있는데, 석등안의 차 공양을 하는 상은 연기조사이고, 탑 안에서 합장하고 있는 상은 연기조사어머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단부의 네 기둥의 사자는 각각 희, 노, 애, 락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석탑 만드는 솜씨가 최고조에 이르러, 새로운 변형을 시도한 특수 형 탑으로 불국사의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형 탑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4사자삼층석탑의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화엄사의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질의문답시간을 가진 후)

오늘 화엄사를 통해 지리산이 품고 있는 후덕함과 우리문화 자원의 소중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상상의 동물 연과 함께한 화엄사 문화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2. 현황사진

